



김효신의 노르웨이 베르겐 여행기
Norway in a Nutshell

30. 피요르 사이로 출발

우리는 페리호 앞에 줄을 서서 기다렸다. 배 이름은 파 나라켄호(Fanaraaken), 배 옆에 노르웨이어로 써져 있다. 밖에서 가만히 서 있으려니 너무 추워서 나도 모르게 발을 동동 굴렀다. 구드방겐의 낮 최고 기온은 화씨 26도. 영하의 날씨에 해가 없고 구름이 자욱해 더욱 추웠다. 습기도 만만치 않아서 머리카락이 축축하게 젖어 얼굴에 달라 붙었다.

뮌탈 쪽에서 타고 온 승객들이 다 내리고, 잠시 후에 페리호 선원이 앞에 쳐 놓은 줄을 걸으며 들어 오라고 한다. 다들 노르웨이 요약 티켓을 보여 주고 안으로 들어섰다. 멀리서 볼 때는 몰랐는데 페리는 매우 컸다. 자동차가 그대로 운전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다.

페리 안쪽으로 들어가니 정면에 계단이 나왔다. 모두가 층으로 올라갔다. 노르웨이 국가가 개양되어 있는 이층에는 난방이 되어 있는 선실이 있고 밖에서 경치를 볼 수 있도록 갑판에 의자가 배치되어 있다. 거기서 또 한 층 올라가니 그곳은 전망이 더 좋았다. 흰 난간으로 둘러싸이고 초록색으로 바닥을 칠한 넓은 갑판이다.

나는 배가 가는 방향으로 맨 앞에 위치하고 싶어서 주위를 둘러 보았다. 노르웨이 국가가 펼쳐지는 배 맨 앞쪽 끝에 의자가 대여섯 개 배치되어 있고 중국인 아가씨 두 명이 앉아 있었다. 나도 따라서 거기에 앉았다. 내가 앉으니 또 프랑스인 젊은 커플이 와서 따라 앉았다. 모두 들떠서 살을 에는 추위에도 아랑곳 않고 신나게 떠들고 있었다. 물론 나도 마음이 한껏 부풀었다. 이제 출발이다! 페리는 우리를 싣고 피요르 사이로 두 시간 동안 항해해 뮌탈로 향한다. 시야가 탁 트였으니 출발하면 제일 잘 보이겠지.

그러나 그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다. 거기는 맨 앞이 아

나라 맨 뒤였다. 페리는 힘차게 고동을 울리며 출발했는데 움직이면서 선체를 한 바퀴 돌렸다. 완전히 돌리고 나니 우리는 뒤를 보며 거꾸로 가는 꼴이 되었다. 의자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전부 놀라서 웃음을 터뜨렸다. 나도 따라 웃다가 별쩍 일어나서 반대편 앞으로 갔다. 기관실이 있는 곳이 앞인데 바보처럼 그걸 모르다니! 아닌게아니라 이층 기관실 옆으로 벡터리 앞에 젊은 아이들이 자리를 잡고 서서 이미 한창 사진을 찍고 있었다. 나도 그 사이에 끼어 들었다.

페리 뒤쪽으로 바이킹 마을 구드방겐은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다. 질푸른 강물을 헤치고 배는 앞으로 나아간다. 강물 위에 떠내려오는 얼음판들이 배 옆으로 계속 지나갔다. 강변에도 얼음이 얼어 있었다. 일부 강변에는 두껍고 넓게 얼어 배가 얼음을 깨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도 했다. 천천히 앞으로 가는데도 얼음을 깨면서, 또 흘러오는 얼음판 사이로 강물을 헤치면서 배가 나아가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나는 기관실 앞에서 물러나 넓은 갑판 위로 가렸다. 차가운 바람이 사정없이 몰아치는 영하의 날씨 속에 배 위에 서서 피요르 사이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고 있는데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숙여 강물을 내려다 보았다. 배가 가면서 휘저어 놓은 네로달셀비 강물은 이상하게 부드러운 느낌이 들었다. 물결도 원만한 곡선을 이루면서 퍼져 나간다. 어두운 강물에 파장이 퍼지면서 물 위에 비치던 피요르와 강변의 풍경이 깨지면서 흔들렸다. 에드바르트 뭉크의 그림과 똑같았다! 평생 정신질환을 앓았던 뭉크가 어지러운 마음 상태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는 그림을 그린 줄 알았더니 노르웨이의 풍경을 보이는 대로 똑같이 그린 것이었구나! 나는 피요르 사이로 강물을 헤치며 출발한 페리호 갑판에 서서 노르웨이 화가 뭉크의 작품세계를 그제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정통 지압

바디(몸) + 발 \$30
바디 (1시간) \$40
발 (1시간) \$25
종아리 + 발(1시간) \$30
(입장료 포함)

GG 퀸스파(남자 지압사)
714-591-5260
985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부에나 팍 양로병원

Buena Park Nursing Center ★★★★★

Skilled Nursing

IV 투여, 당뇨, 통증관리, 투석케어
외상치료, 호스피스케어 등

Subacute Unit

Respiratory, Tracheostomy Care
Ventilator 등

서비스

한국음식 또는 미국음식
한국인 스태프 / 한국인 소셜워커
한국책, 신문 / 24시간 한국방송
다양한 한인교회 봉사활동

재활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메디케어, 개인, 메디칼, HMO, PPO 취급합니다

www.buenaparknc.com

한국어: 562-240-3516 한국분이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영어 : 714-828-8222 Fax:714-828-1467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플러튼 | 세리토스 | 사이프레스 | 라팔마 | 부에나팍 | 라미라다 | 라하브라

REDPOINT REALTY

17년 탐에이전트 경험으로 잘 팔고 사드리겠습니다!!!

- ✓ 한국일보 칼럼니스트 (Since 2004~)
- ✓ 레드포인트 부동산 명예 부사장



카니 정 | DRE 01433245
714-244-7800

656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독점 부에나팍 타운홈

방2 화2 게이트단지
로스코요테 골프장 근접, 하이실링
나무마루, 나무가 우거진 페티오
써니힐 하이, 렌트 (\$2,700)
잘 나가는 투자용으로도
좋은 매물. 마켓에 없는 집
\$619,000

독점 플러튼

Greens 단지내 가장 큰 모델
방3 + Den 화2.5 건평 2,070 SF
하이실링, 베이윈도우, 리세스라이트
탁트인 전망, 발코니, 플러튼 최고 학교
\$689,000

독점 라하브라

2019년생 예쁜 새단지,
2,000sf, 방4 화3.5
업그레이드 많이한 새 집,
좋은 위치
\$729,000

독점 부에나팍 창고 리스

8,800SF
5FWY와 Artesia Blvd가
만나는 상권 최고
사무실도 겸함
\$11,000

독점 다이아몬드 바

SOLD
방4 화2 리모델링 단층집
넓은 뒷마당 밝고 환한 남향집
리세스라이트, 크라운 몰딩
좋은 학교
\$789,999

사이프레스

방3 화1.5 탱글우드 타운홈
렉싱턴 주니어
사이프레스 하이
단지내 좋은 가격
\$495,000

부에나팍

방2 화2, 게이트단지
로스코요테 골프단지 근접
하이실링, 써니힐 하이
\$579,000

플러튼

게이트 단지, 방4 화2.5
1998년생, 넓은 부역, 마켓
샤핑센터 근접
단지 내 놀이터, 수영장
\$747,000

- 부에나팍 : \$875,000
- 부에나팍 : \$590,000
- 라팔마 : \$690,000
- 라미라다 : \$773,000
- 라미라다 : \$317,000
- 방4 화3, 2005년생 H mart 옆, 리세스라이트, 써니힐하이
- 방3 화2.5, 1999년생 게이트 단지, 업그레이드 많이 한 예쁜 집
- 방4 화2, 단층집, 하이실링, 새마루, 리세스 라이트
- 방3 화2.5, 게이트 단지, 1997년생, 우드셔터, 골프단지 근접
- 방1 화1, 시니어 타운홈, 24시간 시큐리티, 마켓 근접